

Japan Weekly Digest

2012. 1. 7. ~ 2012. 1. 13

□ 금주의 이슈

- 무역흑자 대국, 31년 만에 무역적자 반전
- 앞으로 수 년 동안은 적자기조 정착 전망
- 노다 총리, 중폭 개각

□ 일본기업전략

-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소재기업의 사업강화 전략
- 캐논, 네덜란드에 무인공장 건설, 유럽전략거점으로
- 닛산 포크리프트, OEM전략 확대

□ 경제산업성 동향

- 일본중소기업 인도 진출 지원
-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과 연대, 기초·응용 융합연구 지원

□ 보고서 리뷰

- 『일본의 100년 장수기업들의 인재활용 노하우』, 고령·장애자 고용지원기구, 1월7일



대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무역흑자 대국, 31년 만에 무역적자 반전

- 일본이 작년 원전사고의 영향에 따른 연료수입 증가 등으로 31년 만에 무역적자 반전이 확실시, 지금상태로는 향후 수년간 무역적자 탈피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작년 1~11월 기간 중 2.3조 엔의 무역적자가 발생(1980년 이후 처음), 사상 초유의 엔고,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로 LNG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적자를 보전하지 않으면 자금의 해외유출로 국제 소화 등 국가의 재정운영도 해외에 의존해야만 하는 등 일본경제가 기로에 서 있음

□ 향후 수 년 동안은 적자기조 정착 전망

- 문제는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음. 원전 가동율이 지진발생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대체연료인 화력발전연료 수입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감속하게 되는 경우 일본 수출도 감소
- 과거 2002~2007년처럼 세계경제의 고성장과 지속적인 엔저로 반전되지 않는 한, 일본의 무역적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예측이 지배적임

□ 노다 총리, 중폭 개각

- 노다 총리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 전 간사장을 부총리 겸 사회보장·세제 일체개혁·행정담당대신으로 기용,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민주당 총무위원장을 방위대신으로,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토교통부 부대신을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소비자 담당대신으로,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참의원 간사장을 법무대신으로 각각 기용. 이들 3인은 처음 입각. 이외에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문부과학대신으로 기용하는 등 총 5명이 교체된 중폭 개각
-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를 골격으로 한 사회보장·세제 일체개혁과 동일본대지진 부흥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개각이라고 설명
- 노다 총리는 이번 개각으로 소비세 인상 추진을 위한 진용을 정비, 이달 24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대국민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노다 총리는 정기국회에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오자와 그룹을 축으로 한 민주당내 반발이 심한데다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

◆ 일본기업전략

□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소재기업들의 사업 강화 전략

- 스미토모화학, JSR, 시마즈제작소, 소니,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일본의 산·관·학 연구팀이 에너지절약 기능이 탁월한 대형유기EL디스플레이어를 양산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 실용될 경우 액정에 비하여 20~30%소비전력을 절감
- 일본의 대형 가전업체들은 유기EL디스플레이어의 제품화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소재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번 연구 성과를 관련사업 강화로 연결시킬 전망
- 산·관·학 프로젝트는 일본기술을 결집하여 대형유기EL디스플레이어를 개발할 목적으로 4년전 일본정부의 연구과제로 추진. 그러나 작년 파나소닉의 TV사업 축소, 박형 TV부문에 대한 투자 보류 등 상황변화로 소니 등 가전메이커들이 이번의 기술을 사업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는 불확실한 상황

□ 캐논, 네덜란드에 무인공장 건설, 유럽전략 거점으로

- 캐논이 네덜란드에 첨단 토너카트리지 공장을 신설. 로봇을 활용, 조립공정을 완전무인 자동화공장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수송비용, 유로화 가치 하락 등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2대 소비지인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생산규모의 확충과 수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 캐논은 2010년 3월 네덜란드의 프린터메이커 오세를 매수, 유럽에서 복합기 등 사무기기 분야의 사업을 가속화시켜 미래 유럽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

□ 닛산 포크리프트, OEM전략 확대

- 닛산포크리프트는 통합예정인 히타치건설기의 자회사인 TCM과 포크리프트의 상호OEM공급을 개시
- 닛산포크와 TCM은 올 봄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히타치건설기, 닛산자동차가 출자하는 유니캐리어 산하에 들어가 경영통합을 하게 됨
- TCM에서 구미시장 판매용인 6~8톤급의 소형엔진차를 OEM방식으로 공급받는 대신, 닛산포크리프트는 북미시장 판매용 소형전기차를 TCM에 공급
- 항주집단(杭州集团)공사에 생산을 위탁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으로 닛산이 중국기업에게 위탁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경제산업성 동향

□ 일본중소기업 인도 진출 지원

- 경제산업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우선 일본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 남부를 중점지역으로 설정
- 인도를 방문한 에다노 경산대신은 인도 주정부에 항만,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강화를 요청.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도 해외진출이 용이한 체제를 정비하여 아시아의 성장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
- 인도 남부는 닛산, 도요타자동차, 도시바, 코마츠 등 자동차, 기계를 중심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음. 경산성은 앞으로 제조업의 서플라이체인이 종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인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일본정부가 지원,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일본에 환류시켜 일본에서의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방침
- 정부간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경산대신은 인도 자야랄리아 주정부 수상과 회담 하고 자동차, 기계의 수출을 위한 항만, 연결도로, 공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상수도 등 인프라 정비를 요구, 인도 주정부는 일본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
 - 구체적으로는 닛키,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과 싱가포르의 부동산개발기업 아세다스로 구성된 국제기업연합이 일본기업 전용공업단지를 정비. 기업 연합이 용지를 취득, 조성한 후 일본기업에 분양할 계획. 총사업비 500억엔 규모로 자가발전설비 등을 자력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

□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과 연대, 기초·응용 융합연구 지원

-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대를 강화. 금년도부터 재료기술 등 산·관·학 연구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착수시킨 후 쌍방의 연구를 연결·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응용분야와 기초분야의 융합을 추진할 목적으로 10년간 재정지원 하에 실시한다는 목표
- 신규로 「미래개척기술실현프로젝트」를 창설하여 자성재료, 광일렉트로닉스, 촉매기술 등 연구테마를 선정. 기업이 참여하는 실용화연구개발, 대학 등 공공기관 중심의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양부처의 담당자와 산·관·학 대표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를 설치, 의견을 교환할 예정

◆ 보고서 리뷰

『일본 100년 장수기업의 인재 활용 노하우』

고령·장애자 고용지원기구, 1월7일

□ 장수기업 대국 일본

- 일본에는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 약 5만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0%가 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7.2%로 가장 많음

□ 기업 장수의 비결

- 전통적인 「가업(家)」 제도의 존재
 - 일본에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는 전통적인 가업을 계승한 기업들이라는 점임
 - 고수하고 있는 전통은 고객제일주의, 본업중시 경영, 품질 본위, 종업원 중시, 노하우의 유지·계승, 기업이념의 유지 등임
- 전통의 계승과 혁신
 - 또 하나의 특징은 전통의 계승과 혁신을 양립시킨 기업들이라는 점임. 주된 혁신으로는 신규고객, 신시장 개척, 판매채널 변경, 신규 상품 확립,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신상품서비스 개발 등
- 창업자 가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 일본 장수기업은 대다수가 패밀리 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지속을 우선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양질의 품질·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중시한다는 점임

□ 장수기업의 인재활용 노하우

- 종업원을 소중히 대하고 인재를 육성
 - 기업은 사람하기 나뭇이라고 하듯이 일본기업들은 예로부터 종업원을 소중히 여기고 인재육성에 매진. 오늘까지도 신입사원 환영회, 사원 여행, 떡방아 찢기 등 종업원들 간 일체감을 다지는 행사가 많음

○ 고령자도 적극 활용

- 장수기업의 생존요인인 전통의 계승과 혁신 중 보존해야 할 전통인 품질 본위, 제조 유지에는 고령자의 기능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장수기업의 과제와 전망

- 향후에는 장수기업들도 후계자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관건은 「인재 육성과 활용」임. 기업 장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육성, 신규고객 개발, 신상품 개발 등 경영혁신과 경영후계자 육성 등이 필요

*출처:http://www.jeed.or.jp/data/elderly/elder/download/2012_01-05.pdf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1) 『TPP, 한·중·일 FTA의 향방』 국제무역투자연구소, 1월7일

*출처:<http://www.iti.or.jp/flash150.htm>

(2) 『사회보장·세제일체개혁 기본안』 내각관방, 1월7일

*출처:<http://www.cas.go.jp/jp/seisaku/syakaihousyoku/pdf/240106houkoku.pdf>

(3) 『일본 100년 기업들의 인재활용 노하우』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 1월7일

*출처:http://www.jeed.or.jp/data/elderly/elder/download/2012_01-05.pdf

(4) 『모노즈쿠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중단』 미즈호종합연구소, 1월7일

*출처:<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opinion/eyes/pdf/eyes120111.pdf>

(5) 『신중국에서의 경쟁우위전략』 노무라종합연구소, 1월11일

*출처:<http://www.nri.co.jp/opinion/chitekishisan/2011/pdf/cs20111102.pdf>

(6) 『대지진과 기업행동의 다이내믹스』 경제산업연구소, 1월12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2010001.html>

(7) 『2010년 일본·미국·유럽·아시아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실태분석 결과』 일본기계수출조합, 1월12일

*출처:http://www.jmcti.org/img/120111_press.pdf